

인권 존중심 향상을 위한 영화치료*

-<별별이야기>를 중심으로-

윤일수(강원대)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인권 존중심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 2. 인권이 유린되는 사회상 | 4. 맺음말 |

1. 머리말

1960년 이래, 유엔은 국제인권법의 실현을 위해 각국에 특별한 인권기구를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 공포하여, 같은 해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의하면,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¹⁾라고 하여 인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

플라톤(Platon, B.C.427?~347)에 의하면, 국가를 수립하는 목적은 어느 한 계층이 특히 행복하게 되도록 하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최대한으로 행복해지기를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M0056).

1) http://www.humanrights.go.kr/02_sub/body01.jsp

바라서라고 한다. 따라서 전체의 행복을 도모하는 국가가 그 어떤 국가보다 가장 정의로운 곳이라고 보았다. 즉 행복한 국가는 소수의 사람을 따로 떼어내어 이들을 행복하게 만듦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행복하게 만듦으로써 가능하다고 하여 국가의 목적이 국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한다.²⁾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차별받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국가는 이미 정의로운 곳도 아니고, 행복한 국가도 아니다. 따라서 차별없는 사회, 즉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반드시 구현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영화치료를 통해 인권 존중심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의롭고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획하여 제작한 애니메이션 <별별이야기>³⁾는 차별을 없애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홍보문구에 의하면,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의식을 지적하고 차별을 차이와 구별하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작되었다고 한다. 또한 DVD케이스에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 힘’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영화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개혁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

<별별이야기>는 차별에 대해 풍자를 하고 있는 <낮잠>·<동물농장>·<그 여자네 집>·<육다골대녀(肉多骨大女)>·<자전거 여행>·<사람이 되어라> 등의 여섯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작품은 장애인·소수자·성 역할·외모·외국인 노동자·학벌 등을 다룸으로써 차별의 부당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열린 결말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관객들로 하여금 차별없는 사회, 즉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에 대해 생각해 보게끔 한다는 점에서 인권 존중심 향상이라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므로 본 연구의 텍스트로 삼았다. 영화치료의 역사가 그다지 길지 않은 관계로 아직까지 인권 존중심 향상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영화를 활용해 사람들의 인권 존중심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는다면, 영화치료를 인성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2) 최성철, 「인권의 철학적 배경에 관한 연구-자연법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론총』, 21집 1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99.7, p.101.

3) 국가인권위원회, 애니메이션 <별별이야기>, (서울: 대경DVD, 2005).

것이다. 왜냐하면 본 영화치료는 인문학에 의한 인문을 위한 치료로써 인문치료의 일환이기 때문이다.⁴⁾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한국(HK)사업단에 의하면, ‘인문치료’란 인문학을 수단으로 인간의 마음의 문제들을 치유할 목적으로 연계학 문들과의 융합을 모색하는 학문 분야라고 정의하고 있다.⁵⁾ 이에 비해 김기봉은 ‘인문(人文)’이란 ‘사람의 무늬’를 뜻하는 것으로, 사람의 무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해서 발생한 인간성 상실을 회복하려는 치료의 목적을 가진 것이 인문치료라고 정의하고 있다.⁶⁾ 따라서 본고에서는 ‘영화’라는 인문학 매체를 사용하여, 인간성 상실을 회복하려는 데 목적을 둔 인문치료의 일환이라는 의미에서 영화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본 연구는 2000년대 후반, ○○대학교 영화관련 강의시간에 전(全) 학과 전(全) 학년의 학생 127명을 대상으로 75분씩 2회로 나누어 실시했다.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직접 만들어 진행하였으며, 순서는 ‘영화 감상 → 설문지 작성 → 집단 토론 → 발표 → 강의’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영화치료를 하기에 앞서 워밍업을 진행하지만, 본 프로그램의 텍스트인 <별별이야기>는 옴니버스 형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빛어지는 인권을 침해하는 양상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 이미 워밍업이 되기 때문에 다른 워밍업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었다.

<별별이야기>에서 <낮잠>은 장애인을, <자전거 여행>은 외국인 노동자를, <육다골대녀(肉多骨大女)>는 추녀를, <그 여자네 집>은 가부장사회에 사는 여성을, <사람이 되어라>는 학력이 낮은 사람을, <동물농장>은 소수 약자를 다루고 있다. 이 중에서 <동물농장>은 양과 염소로 상징화되는 사회적 강자와 약자의 대립을 보여줌으로써 전체를 아우르므로 질문지 작성에 필요한 텍스트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질문지에서 양은 기득권층을 상징하고, 염소는 장애인·가부장사회에

4) 김기봉, 「인문치료의 역사-‘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역사의 무거움-」, 『2010 인문치료 국내학술대회 자료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한국(HK) 인문치료 사업단, 2010.5.14.~15. p.45.

5)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치료』,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9. p.20.

6) 김기봉, 앞의 글, p.45.

서 억눌려 사는 여성·추녀·외국인 노동자·저학력자 등의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

설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동물농장의 양들은 왜 염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 2) 염소는 왜 양털로 옷을 짜 입고 자신의 땀을 잘랐을까요?
- 3) 염소는 왜 자살을 시도했을까요?
- 4) 동물농장에 많은 종류의 동물이 온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 5) 양과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① 실제 예, ② 결과(극복 여부), ③ 그때 기분
- 6) 염소와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① 실제 예, ② 결과(극복 여부), ③ 그때 기분
- 7) 우리 사회를 동물농장이라 본다면 어떤 모습인가요?
- 8) 살기 좋은 동물농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9) 보고 느낀 점을 적으시오.

질문 1)~3)까지는 영화의 내용을 묻는 것으로 같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응답자의 경험에 따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응답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질문 4)와 질문 7)~8)까지는 응답자의 사회관을 묻는 것이며, 질문 5)와 질문 6)는 사회적 강자와 사회적 약자라는 상반된 위치에 대한 응답자의 경험 여부를 묻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지각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보고,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별로 설문지 작성이 끝나면, 조별로 각 질문에 대해 토의를 하게끔 했다. 조별로 토론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게 하여 정보를 공유하게 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인권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본 연구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각각의 작품을 차별로 인한 인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다른 하나는 설문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영화치료 참여자들의 인권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다. 영화치료 프로그램의 실제 진행은 진행자의 의견이 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문지에 대한

토론과 발표를 먼저 하고, 영화 분석은 뒤에 하는 순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작품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 참여자들의 응답 내용에 대한 분석이 뒤에 이루어지는 형태를 취했다.

2. 인권이 유린되는 사회상

<별별이야기>는 차별을 소재로 한 <낮잠>·<동물농장>·<그 여자네 집>·<육다골대녀(肉多骨大女)>·<자전거 여행>·<사람이 되어라> 등 여섯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유진희 감독의 <낮잠>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첫 장면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빨래, 댕돌 위에 놓인 신발과 휠체어, 가족사진 등을 통해 장애아가 있는 가정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고, 뒤이어 장애아가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평범한 일상과 장애이를 대하는 차별적인 태도를 대조시킴으로써,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점을 부각시킨다. 먼저, 수영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손가락과 발이 없는 바로를 마치 괴물 대하듯 한다. 또한 휠체어를 타고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바로와 아빠를 버스는 태우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택시조차 이들을 외면한 채 지나쳐 버린다. 집안에서 아빠와 낮잠을 자는 바로의 첫번째 그림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 때문에 집에서만 지낼 수밖에 없는 바로의 처지를 나타낸다. 보건복지부의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들이 한 달에 평균 몇 번 정도 외출하는지 그 빈도를 알아본 결과, 외출을 거의 매일 하는 경우가 5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주일에 1~3회가 19.6%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혀 외출하지 않는 경우도 6.4%나 차지하고 있으며, 연 10회 이내도 5.3%나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비장애인들의 생활과 비교해볼 때, 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를 경험하는 정도를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의 내용에 있어서 응답자의 92.7%가 TV시청을 한다고 하였으며, 연극이나 영화 관람, 스포츠 활동, PC통신 등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⁷⁾ 바로가 이동수단을 구하지

못해 집안에서 지낼 수밖에 없듯이 여러 위락 장소에 가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집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체적으로 노랑색을 띠는 두번째 그림에서 바로가 들고 있는 꽃망울은 바로의 친구에 대한 동경과 배움에 대한 꿈을 상징한다. 바로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 아이들이 부르는 합창소리에 이끌려 유치원을 방문한다. 처음 방문한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교사는 바로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두번째로 방문한 곳에서는 아예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데,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서 교육의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는 현실을 상징한다. 세번째로 방문한 유치원은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곳이지만, 까마득한 계단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가 올라가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다. 종소리를 울리며 ‘여기요, 여기’라며 바로를 부르는 높은 곳에 위치한 유치원은,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사회복지제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뺏치기 어렵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들의 교육 수준을 초등학교가 30.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등학교가 24.1%, 중학교 14.2%의 순이며,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경우도 전체의 21.5%로 나타난다. 이러한 통계는 전체 국민의 교육 수준이 초등학교 26.6%, 중학교 15.7%, 고등학교 38.0%, 대학교 이상 19.7%(통계청, 2000)인 점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⁸⁾ 이러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육수준의 차이는 바로가 유치원에 갈 수 없었던 것처럼 장애인에 대해 비호의적인 교육현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바로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른 신체상의 특이성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가며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2003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TNS가 실시한 장애와 차별에 대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중 73.7%가 장애 때문에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TNS, 2003). 또한 1999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7) 이선우 외,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계측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pp.170~177.(곽정란, 「장애인권 인권,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6권 2호,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2005.6. p.421. 채인용)

8) 위의 글, p.422.

응답자 중 86.7%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한국 장애인연합단체연맹, 1999).⁹⁾ 장애인은 <낮잠>에서 장애강아지가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듯이 사회로부터 버림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바로가 장애강아지와 함께 살아가듯이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이다. 이 작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쓰레기 투기 금지’라는 경고문 아래 적힌 문구처럼 ‘양심을 버리는 일’로 인권 침해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권오성 감독의 <동물농장>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리처드 케니에 의하면, 1260년 모자이크에서 염소는 반인반수의 모습을 한 루시퍼로 등장하며,¹⁰⁾ 기독교의 상징에서 ‘염소’의 뿔은 성적 불능으로 변형된 사악한 죄악의 표상이며, 염소는 인간의 음탕함과 야수적 욕망을 나타내는 야수적 인간(homo selvaticus)을 표상이라고 한다.¹¹⁾ 양 무리의 입장에서는 염소가 자신들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낮췄 자체를 ‘위험’으로 감지한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 자신들을 선(善)으로 규정하고, 낮선 존재를 악(惡)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변정수에 의하면, 진정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낮선 존재와 접촉하는 데 두려움이나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될 만큼, 굳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전한 사회적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한다. 만약 세상 모든 사람이 ‘남’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건설된다면,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남’과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몸으로 익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낮선 존재와 접촉하는 것을 위험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즐거운 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한다.¹²⁾ <동물농장>에서 양의 우두머리가 양 무리로부터 염소를 격리시키는 것도 낮선 존재인 염소가 양 무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9) 광정란, 『장애인권과 인권』,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6권 2호,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2005.6. p.418.

10) Richard Kearney, *STRANGERS, GODS AND MONSTERS*, Routledge.(이지영 역, 『이방인·신·괴물』, 서울: 개마고원, 2004. p.55.)

11) 위의 글, p.56.

12) 변정수, 『그들만의 상식』, 모티브, 2005. pp.141~142.

먹이를 갈취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에서 비롯되었다. 만약 양의 우두머리나 양 무리의 입장에서 염소가 자신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으며, 먹이를 함께 나누어 먹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염소를 경계하지 않을 것이다.

염소의 입장에서 사회적 동물이기에 다른 누군가와 함께 어울려 살기를 열망한다. 그러나 양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염소는 분명 타자이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타자는 서로 함께 있음의 본질적인 상황 속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즉 진리를 한 가운데 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서로 관계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한(face à face)’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 타자와의 근원적인 관계는 함께(mit)라는 전치사를 통해 묘사될 수 없다는 것이다.¹³⁾ 즉 염소는 분명 양 무리와 함께 있지만, 양 무리가 염소를 자신들과 동일한 존재로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양 무리는 염소를 타자화시킴으로써 자신들의 결속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자신들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양들은 풍성한 털에 싸여 있으며 둥글게 말린 뿔을 달고 있다는 신체상의 유사성 뿐만 아니라, 같은 울타리 안에서 생활함으로 인하여 문화적인 특질도 공유하게 됨으로써 같은 무리끼리 공동체로서의 공감대를 이미 형성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염소가 양털로 옷을 짜입고 뾰족한 뿔을 잘라 양과 유사한 모습으로 양 무리에 속하고자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자카이 도시아키(小坂井敏晶)의 지적처럼, 경계가 애매해지면 질수록 경계를 지키기 위한 차이화 벡터(vector)는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¹⁴⁾ 즉 양과 염소라는 인종차별은 이질성의 문제가 아닌, 동질성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차이가 있다고 하는 여건이 원인이 아니라 동질을 차이화하는 운동이 원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 간격은 좁혀질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따라서 염소는 천연의 털이 아니라는 차이로 인하여 양 무리로 부터 내쳐질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양 우두머리의 의지대로 염소를 내치지만, 다른 이방인인 젓소·돼

13) Emmanuel Levinas, *Le Temps et L'autre*, Fata Morgana, 1979.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서울: 문예출판사, 2001. p.31.)

14) 고자카이 도시아키(小坂井敏晶), 방광석 역, 『민족은 없다』, 뿌리와 이파리, 2003. p.46.

지·거위·닭 등이 한꺼번에 몰려옴으로 해서 더 이상 양이 사는 울타리가 아니라, 다양한 동물이 사는 동물농장이 된다. 한 마리의 염소만 있을 때는 양들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규정되어 타자화되어 배척당했지만, 다양한 종류의 이방인들이 몰려와 양들과 수적으로 비슷한 규모를 이루고 그 중에 양보다 힘센 무리들이 섞여 있음으로 해서 양들은 더 이상 염소를 타자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고자카이 도시아키(小坂井敏晶)에 의하면, 복수의 사람들이 공통의 미래를 꿈꾸고, 운명공동체로서의 정치기구를 구성하게 되면, 처음에는 인공적인 집합에 불과했던 것이 여러 세대에 걸친 공동생활로 인해 마치 같은 조상을 가지는 것처럼 신화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¹⁵⁾ 즉 나와 너를 경계지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어 더불어 사는 사회가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5인 프로젝트팀의 <그 여자네 집>은 사회에 만연한 고정된 남녀 성 역할을 다루고 있다. 자본주의적 가부장사회에서 남성의 역할만 높이 평가되고, 상대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평가절하되는 양상을 상징화시켜 보여준다. 첫 장면은 어둠이 깔린 가운데 아이의 우는 소리가 들리자, 잠결에 눈을 뜬 엄마는 어둠 속에서 아이를 찾는 것으로 시작한다. 피곤에 지친 상태를 상징하듯 비몽사몽 간에 그녀는 아이를 찾아 장롱을 열어보기도 하고 서랍을 열어보기도 하는데, 이때 아빠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육아를 여성이 담당해야 할 몫으로 규정짓는 사회 풍조를 나타낸다.

김엘림에 의하면 자본주의 국가가 복지국가화하면서 남성은 생계책임자 여성은 가사노동이라는 이분법적으로 성 역할을 나누었다고 한다. 그러한 사회구조는 여성을 자녀의 양육, 노인 및 가족환자의 보호업무 등의 일차적 수행자로 취급하며, 사회적 보장비용을 가정에 전가하여 왔다는 것이다.¹⁶⁾ <그 여자네 집>에서 고정된 성별 역할 분업은 집 안에서 입고 있는 옷 색깔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사회생활을 위해 출근할 때, 그 여자와 남편은 회색 옷을 착용하지만, 집안에 있을 때 여자는 분홍색의 옷을 입고 남편은 푸른색의 옷을 입는다. 성 역할 분업의

15) 같은 책, 같은 페이지.

16) 김엘림, 「여성과 노동복지관계법」, 『법과 사회』, 8호, 법과 사회이론학회, 1993. p.123.

전통에 따라 여자는 아기를 돌보고, 요리와 집안일을 하지만, 남편은 오직 자신의 매무새를 가다듬고 아내가 차려놓은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집안일이나 아이 돌보기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화면에 등장하는 순간에는 아거나 집안일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여자가 화면에 등장하는 순간에는 아기와 함께 쌓여있는 집안일이 나타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고정된 성 역할의 분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성도 남성과 같이 생산현장에서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된 데 따른 평등한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가사노동은 직장을 가진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사노동은 여성 활동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결정적 변수가 되고 있으며 동시에 여성의 사회적인 삶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육아문제를 전적으로 가정에서 처리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¹⁷⁾ <그 여자네 집>에서 아기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남편은 전혀 개의치 않고 출근하지만, 여자는 출근할 수 없게 되는 것에서 육아문제가 전적으로 여성에게 부여된 의무임을 보여준다. 처리해야 할 집안일이 잔뜩 쌓인 상황에서 여자가 설거지를 할 때 접시가 거대해지고, 세탁물을 꺼낼 때 세탁기와 세탁물이 거대해지는 것은 집안일이 가져다주는 부담감을 상징하는 것이다. 집안일에 대한 남편과 여자의 입장 차이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확연하게 드러난다. 남편에게 있어서 가정은 편안한 휴식의 공간이다. 퇴근과 함께 남편의 외출복은 저절로 벗겨져 날아다니고 남편은 휴식에 들어간다. 반면 여자에게 있어서 가정은 질식할 만큼 답답한 공간이다. 이것은 남편이 벗어놓은 옷가지가 거대한 덩어리가 되어 몸을 쪼여오고, 설거지를 하다가 질식할 뻔하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성별에 따라 다르게 체감되는 결혼생활을 통해 여성들은 가족주의 문화, 나아가 남성 중심적인 사회질서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한다. 여성들은 가족주의로 표출되는 부계혈통 중심의 문화관행에 대한 변화 욕구가 남성보다 클 수밖에 없으며, 이는 양성의 가족이념과 가치 격차를 심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¹⁸⁾ 젊은 여성들에게 있어 결혼은 더 이상 삶의 필수적인 통과 의례

17) 김중휴, 「여성과 인권」, 『저스티스』, 28권 2호, 한국법학원, 1995. 12. p.183.

로서 간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희생과 헌신 역시 가치있는 삶의 방식으로 수용되지 않고 있다. 오늘날 여성들의 정치사회적 권리는 물론 자아실현과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더 이상 아내와 엄마, 딸과 같은 가족 내 지위에 묶어두길 원하지 않는다. 그러한 여성들의 의식의 변화를 반영하듯이 <그 여자네 집>에서 여자는 청소를 하면서 가전제품·가구·창문·벽을 비롯하여 쇼파에 누운 남편까지 기존에 존재했던 모든 것을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인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가 되자, 페인트와 벽지를 가져와, 가슴에 매달려 있는 아이가 살아갈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새로운 세상을 정성스럽게 그린다.

이애림 감독의 <육다골대녀(肉多骨太女)>는 외모 차별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첫 장면은 장식장을 따라 카메라가 위로 틸트되면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니, 아주 먼 옛날입니다.”라는 멘트가 나온다. 나레이터의 소개에 의하면, 큰 머리, 큰 뺨, 많은 살을 가진 막내의 외모는 고조에서 중조로, 그리고 조부모에서 부모로 내려온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막내는 그리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집안 내력에 의하면 외모에 대한 차별은 오늘날에만 있어온 것이 아니었다. 외모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연애를 하거나 취직을 위해 날씬한 몸매를 만들려면 ‘굵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미인제조공장에서는 짝어내듯이 똑같은 미인을 만들어 낸다. 뚱뚱한 몸매는 폭탄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인제조공장에서 만들어진 미인들이 에스카레이터 위에 늘어서서 이동하는 모습은 여성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처럼 취급하는 사회현실을 상징화시킨 것이다.

막내가 디근자(ㄷ) 형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물에 들어갔을 때, 뺨곡하게 늘어진 작은 문들이 열리면서 막내와 똑같은 모습을 한 이중자아(double)¹⁹⁾가 나타나

18) 김혜영, 「한국의 가족주의와 여성의 인권」, 『아시아여성연구』, 4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3.12. p.34.

19) 이중자아(double)는 원래 또 다른 자아(altered ego)를 의미한다. 이중자아는 때로 분신, 내적인 목소리 또 하나의 자기 혹은 마음의 쌍둥이 등으로 소개된다. 역할자가 드러내 보이는 말과 행위의 이면, 내면의 느낌, 의식, 무의식적으로 숨겨지고 접혀있는 대상의 진실을 드러내는 자이다. 최현진, 『사이코드라마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3. pp.541~549 참조.

막내의 내면적 갈등을 드러내준다. 구체적으로 “굶으면 몸무게 준다.”, “너나 굶어라.” “굶기가 얼마나 힘든데.” 등과 같이 양(陽)이 표현되고 있으면 음(陰)을, 음(陰)이 표현되고 있으면 양(陽)을 드러내어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처럼 막내의 이중자이는 막내를 긍정하고 지지하는 동반자가 되기도 하고, 막내와 맞서서 싸우거나 반대하는 적대자가 되기도 한다. 수많은 문을 통해 나타난 막내의 이중자이는 막내로 하여금 진실한 선택과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점에서 막내의 이중자들이 간헐하는 디근자(二) 형의 건물은 막내로 대표되는 여성을 구속하는 현실이라는 감옥을 상징한다. 그동안 비서구 비기독교 문화에서 강제 결혼, 지참금 살인, 명예 살인, 여성 할례, 베일쓰기 등과 같이 여성에게 자행되어온 폭력은 많은 비난을 받았다. 여성인권론자에 의하면, 여성할례를 관행화하는 비서구 문화에 비해 그 정도 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날씬한 여성의 몸을 미의 기준으로 여겨서 여성의 과도한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을 고무하는 서구문화 역시 분명히 여성 억압적이라고 한다.²⁰⁾

또한 막내가 자신의 모습을 수면에 비추어 보며 “내가 그렇게 이상해요?”라고 질문을 던지자 “네”라는 대답이 들려온다. <백설공주>에서 왕비가 요술거울을 쳐다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누구니?”라며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패러디한 이 장면은 여성의 존재가치를 오직 ‘아름다움’만으로 평가하는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또한 나르키소스가 물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랑하게 되어 샘만 들여다보다가 마침내 탈진하여 죽어서 꽃이 되었다는 수선화(나르키소스)에 얽힌 신화와는 반대로 막내의 부정적인 질문에서 드러나듯이 미모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사랑받을 권리조차 없는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수많은 이중자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무기를 하나 선택하라고 하는데 막내는 해가 저물도록 그것을 선택하지 못한다. 즉 인간의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더 중시여기는 현실의 무게를 상징하는 것이다. 급기야 막내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이제까지 참아온 울화통을 터뜨리는데, 그 울화통이 하늘로 솟아올라 불꽃놀이를 만들어낸다. 즉 미모만으로 여성을 평가하는 사회의 잣대를 바꾸어야

20) 김희강, 「여성인권의 딜레마」, 『한국정치학회보』, 43집 4호, 한국정치학회, 2009.12. pp.114~115.

할 당위성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이다.

이성강 감독의 <자전거 여행>은 외국인 노동자를 다룬 작품이다. 첫 장면에서 비오는 날, 풀밭에 쓰러진 자전거가 혼자서 일어나 숲길을 달려간다. 거리에서 만난 개들은 빈 자전거를 향해 으르렁거리지만, 자전거가 어느 집안으로 들어서자 그 집 개는 오히려 외면 해버리다가 경계하는 반응까지 보인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전거에는 외국인 노동자 메하가 타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자전거의 모습만 보이고 메하의 모습은 보이지 않은 것은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존재감을 상징한다. 또한 빈 자전거가 혼자서 숲길을 달려가는 모습을 버즈아이뷰 앵글로 바라봄으로써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운신의 폭이 좁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자전거 뒷 좌석에는 메하의 여자친구가 타고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소풍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처지임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메하는 일을 하러 온 노동자로 한국사회에서 노동 이외에 그들에게 허용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설동훈이 지적했듯이, 국민국가가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고안한 ‘이주노동자제도’에서 이주노동자는 ‘인간’과 ‘국민’(또는 시민·주민)이 아니라 관리·통제·처분의 대상인 ‘노동력’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²¹⁾

한국에서는 2004년 8월 17일부터 생산가능적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고용허가제도는 국내에서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사용자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국가는 자국민의 이해관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입국과 자국 내 취업을 통제한다. 국제통제는 내국인의 안전보장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취해지는 국민국가의 주권(sovereignty) 영역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도 거주 이전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언급할 때 ‘한 나라의 영토 내에서’라는 전제를 달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국가가 일정 정도 외국인 노동자의 직업 선택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용인한다.²²⁾ 이런 이유로 인하여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21)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인권-‘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 및 ‘인간의 기본권’의 상충요소 검토-」, 『민주주의와 인권』, 5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5. 10. p.69.

22) 위의 글, pp.40~42. 참조.

노동자들은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공장의 사장은 임금을 체불하고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고 해고해 버린다. 또한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단속반에게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한다. 그 결과 단속을 피해 도주를 하다 트럭에 치여 죽는 메하의 모습은 한국의 법망에 걸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박탈당한 외국인 노동자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박재동 감독의 <사람이 되어라>는 입시 위주의 교육문제를 꼬집은 작품이다. 원철이 다니는 학교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관심은 오직 시험에 나오는 것이냐의 여부이며, 학교생활의 목표는 오직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도 ‘사람이 되어라.’이다. 대학에 가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현실을 상징하듯 아직 고등학생인 원철이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은 모두 유인원으로 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나와 사람이 된 선생님은 아직 유인원인 학생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 중 한 예가 복장 검사이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학생답지 못한 것’이라는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잣대로 용의복장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진다.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 정확하게 무엇을 규제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학생들은 징계결정사항을 통고 받을 뿐, 변론권과 징계내용에 대한 재심요구권 등의 절차는 없다. 권리행사능력을 학습해야 할 학교에서는 학생이 권리를 행사할 기회는 아예 없다.²³⁾

현재 원철은 학교생활이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심하고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철이 학교에 가는 이유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이다. 현재 원철은 이미 곤충에 대해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는 그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사람 가면을 벗어던진 유인원 상태의 아버지는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현실을 상징화시킨 것이다. 아버지의 경험에 의하면 ‘좋은 대학가면 진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고등학교 동창회도 못 나가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타자화시키기 때문이다.

23) 최성철, 앞의 글, p.265.

원철이 장풍과 함께 방문한 숲은 여러 종류의 곤충들이 함께 어울리며, 규칙에 따라 경기를 하는 공동체 사회다. 숲에서는 모든 곤충이 종류에 상관없이 동등한 신분을 가지며, 다른 종류의 곤충이라고 해서 타자화시키지 않는다. 자연 속에서는 ‘남을 돕고,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는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을 원철이 충족시키자 바로 사람이 된다. 즉 자연은 언제나 정직하며 진실만을 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학교에서는 늘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면서도 막상 원철이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학벌로 평가되는 사회기 때문이다.

3. 인권 존중심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별별이야기>를 활용하여 인권 존중심 향상에 관한 영화치료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설문지의 질문 내용이 <동물농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동물농장>이 소수 약자에 대한 차별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작품을 아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응답내용은 영화치료에 참여한 127명을 대상으로 각 질문에 대해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허용된 상황에서 얻어진 결과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퍼센트는 각 질문별 응답 회수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항목에 따라 각기 다르게 사용되었다.

첫째, 양들이 염소를 받아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다른 외양[낯설음]과 배타심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4%(127회), 열등하게 봄 10%(15회), 적으로 인식 3%(5회), 지도자 양의 거부 3%(5회) 등으로 총 152회 응답했다. 양이 염소를 받아주지 않는 이유가 다른 외양 때문이라는 응답이 127명으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이런 결과로 미루어 봤을 때, 염소는 양 무리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라르에 의하면, 집단적 박해 서사들은 동질함이 일반화된 사회에서 위기의 원인이 된다고 여겨지는 최악으로 고방당한 죄인[희생양]에게 성스러움이라는 이름 아래 폭력을 가한다고 했다.²⁴⁾ 바로 <동물농장>에서 염소가 양 무리의 동질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져 배척되고, 급기야 폭력까지 당하는

수모를 꺾어야 했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양 우두머리가 염소로부터 양 무리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 염소가 양털로 옷을 짜 입고, 자신의 뿔을 자른 이유에 대해, 양 무리에 편입 81%(107회), 양들의 거부[소외감] 14%(18회), 먹이 차지 5%(6회) 등으로 총 131회 응답했다. 첫번째 질문이 기득권층의 입장에서 나온 응답이라면, 두번째 질문은 비기득권층의 입장에서 나온 응답으로 서로 대치되는 위치에 있는 두 계층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준다. 양 무리의 입장과는 달리 염소는 단지 양 무리에 편입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접근을 시도했으며, 다른 외양 때문에 받아주지 않자 외양을 바꾸어 재접근을 시도했으나 양 무리에 편입되지 못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타자화는 동질성의 문제로서, 처음에는 염소가 외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당했지만, 양과 닮은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양의 우두머리는 또 다시 가짜 양이라는 차이를 만들어내어 추방했기 때문이다.

셋째, 염소가 자살을 시도한 이유에 대해, 양 무리에 들어 갈 수 없음[거부당함] 40%(72회), 외로움[소외감] 26%(47회), 거듭된 실패로 인한 좌절감[현실비관] 16%(29회), 정체감 회의 8%(15회), 슬픔 3%(5회), 우울증 2%(3회), 자기평가절하 1%(2회), 폭행 당함 1%(2회), 두려움 1%(1회), 부끄러움 1%(1회), 자기 존재를 세상에 인식시킴 1%(1회) 등으로 총 178회 응답했다. 동물농장은 인간사회의 상징이다. 염소가 양 무리에 들어가지 못해(40%), 외로움[소외감](26%)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교감하며 살아야 하는데, 무리에 속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첫번째부터 세번째까지 질문은 영화의 내용을 묻는 것으로 이미 영화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대상을 보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사회적 동물인 사람은 소속감을 가져야 하기도 하지만, ‘의사소통’의 욕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알랭 바디우가 지적했듯이 인간 동물이라는 특수한 다양성이 자신의 이해 관심의 집요한 규정성 속에서 실험하는, 다양성들의

24) Richard Kearney, *STRANGERAS, GODS AND MONSTERS*, Routledge.(이지영 역, 『이방인·신·괴물』, 서울: 개마고원, 2004. p.80.

전 범위에 걸친 의견들을 의사소통하기 때문이다.²⁵⁾

넷째,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온 이후 동물농장의 모습에 대해, 다양성을 인정[개방적 자세] 48%(78회), 평화로운 공존[화합] 38%(61회), 다른 집단 형성 8%(13회), 지도자 굴복 3%(5회), 어쩔 수 없이 같이 삼 2%(3회), 예전같이 될 수도 있음 1%(1회), 너무 다양한 혼란 생길 수도 있음 1%(1회) 등으로 총 162회 응답했다. 응답자의 가치관을 묻는 질문이었는데, 대부분의 응답자가 개방적인 자세를 취해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한다(86%)고 대답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동물농장>과 관련된 이상의 네 가지 질문은 영화 속에 이미 답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양과 비슷한 경험을 묻는 질문인데, 양처럼 다른 사람을 배척한 경우로, 친구 따돌림 23%(20회), 혼혈아와 외국인 노동자 22%(19회), 전학 온 아이[새로 온 아이] 21%(18회), 장애인[정신지체장애] 20%(17회), 나와 다름 8%(7회), 부정적인 면 6%(5회) 등으로 총 86회 응답했다. 가장 높은 비중(23%)을 차지한 친구를 따돌린 경우, 그 이유는 어리버리해서, 실업계여서, 평범하지 않아서, 썩지 않아서, 약해서, 소극적이어서, 냄새가 나서, 가난해서 등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총명/ 명칭, 청결/ 불결, 강함/ 약함, 적극적/ 소극적, 부유/ 가난 등과 같이 우월함에 대치되는 열등함을 나타내는 특징으로, 무리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은 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두번째로 높은 비중(22%)을 차지한 혼혈아와 외국인 노동자를 배척한 것,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20%)을 차지한 장애인[정신지체장애]을 배척한 것과 관련지어 보았을 때, 사회적 약자를 타자화하여 그들을 배척시킴으로써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을 서로 뭉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약자를 타자화시킴으로써 자신들은 그들과 다르다는 우월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외에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한 경우, 구체적인 이유는 나와 달라서(2회), 타 집단이어서(1회), 안 친해서(1회), 청일점이어서(1회), 복학생이어서(1회) 등으로 나타났는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부정적인

25) Alain Badiou, *L'ÉTHIQUE: Essai sur la conscience du Mal*, Paris: Hatier, 1993.(이종영 역, 『윤리학』, 서울: 동문선, 2001. pp.65~66.)

면 때문에 배척한 경우, 구체적인 이유는 부정적인 성격 때문에(2회), 떠들어서(2회), 불쌍스러워서(1회) 등으로 나타났는데, 집단에 피해를 끼치는 성격이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어떠한 이유에서건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행위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척 이후, 그 결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친해짐 31%(17회), 받아들임 19%(10회), 노력 15%(8회), 생각의 변화 15%(8회), 적응·화해 9%(5회), 반성·자제 6%(3회), 챙겨주고 도와줌 6%(3회)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친해지거나 받아들여지게 되었는데(50%),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을 했거나 생각의 변화로까지 나아가기도 하고(30%),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 적응·화해하거나 반성·자제하기도 하고(15%), 아예 경계를 없애버리고 챙겨주고 도와주는 태도(6%)로 나아가기도 했다. 사회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회적 강자가 있으면 반드시 사회적 약자도 있기 마련이다. 그런 상황에서 나와 같지 않다거나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배척한다면, 그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사회가 좋은 사회이기 때문이다.

또한 배척했을 때의 기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 30%(32회), 부정적인 반응 28%(30회), 긍정적인 반응 27%(29회), 그 대상에 대한 연민 16%(17회) 등으로 총 108회 응답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32회)은 구체적으로 미안함(13회), 반성(6회), 부끄러움(5회), 후회(3회), 아쉬움(2회), 씁쓸함(2회), 철없음(1회)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따돌림 당한 대상에 대한 연민의 감정(16회)은 구체적으로, 불쌍함(5회), 안타까움(4회), 외로워 보임(5회), 애처로움(1회), 위축감(1회)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배척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그 대상에 대해 연민을 느끼는 감정은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긍정적인 반응(29회)은 구체적으로 뿌듯함(8회), 좋음(7회), 똑같은 사람(4회), 깨달음(2회), 다른 세상 알게 되어 기쁨(1회), 호기심(1회), 개운함(1회), 걸만 보고 판단금지(1회), 고마움(1회), 자랑스러움(1회), 이해함(1회), 편해짐(1회) 등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이질감을 느끼던 대상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의 기분을 표현한 것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차별을 없앴으로써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반응(30회)은 구체적으로 무서움(3회), 당황함(3회), 거부감(2회), 우월 의식(2회), 죄의식(2회), 기분 안 좋음(2회), 떨쳐내기 힘들(2회), 자기 안도감(2회), 부정적인 면을 닳기 싫어서(1회), 낯섬(1회), 괴로움(1회), 두려움(1회), 적대감(1회), 이기성(1회), 분위기를 맞출 수 없었음(1회), 놀람(1회), 어색함(1회), 공허함(1회), 달갑지 않음(1회), 미안함 없음(1회) 등으로 나타났다. 거부감이나 우월의식으로 특정 대상을 배척하기도 했지만, 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낯섬·어색함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했고, 자기가 배척당하지 않았다는 안도감 때문에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그 대상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체로 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한 사람들로부터 나온 반응이라는 점이 그것을 증명해준다. 또한 죄의식(2회), 기분 안 좋음(2회), 떨쳐내기 힘들(2회)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가해자도 역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섯째, 염소와 비슷한 경험을 묻는 질문인데, 염소처럼 다른 사람들로 부터 배척당한 경우, 그 이유가 새로운 집단 39%(25회), 친구 사이[애인이 있는 친구] 17%(11회), 지역 차이 11%(7회), 실력·정보 9%(6회), 상황의 이질감 9%(6회), 성별 8%(5회), 외모 6%(4회) 등으로 총 64회 응답했다. 사회적 약자인 염소처럼 배척을 당한 이유가 새로운 집단(39%)이나 상황의 이질감(9%)에서 오는 익숙하지 못함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지역 차이(11%), 실력·정보(9%), 성별(8%), 외모(6%) 등과 같이 소수 약자였기 때문에 배척당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적 강자로서 다른 사람을 배척했던 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 문제의 심각함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영화치료에 참여한 대상이 대학 재학생이었던 관계로 이들 자체가 이미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차지한 계층이기 때문이다. 심각한 정도의 사회적 약자는 이미 배제된 상태에서 얻어진 결과이다.

사회적 약자로서 배척당한 이후, 그 결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극복함 77%(54회),

극복하지 못함 23%(16회)로 총 70회 응답했다. 또한 극복한 방법은, 자신의 노력으로 59%(32명), 대화와 마음열기 24%(13명), 적응 13%(7명), 양보 4%(2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극복하지 못한 경우는 주로 외면하고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도 응답자 집단은 자신들이 사회적 약자로서 배척당했을 때 대부분 극복을 하였으므로, 이미 그들은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자신의 노력(59%)이나 대화와 마음열기(24%)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아, 이미 문제해결을 위한 주도권은 응답자들이 쥐고 있는 상태였다. 즉 자신을 배척한 존재들에 대해 대항을 힘이 있는 상태로, 진정한 사회적 약자의 상태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배척당했을 때의 기분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 72%(78회), 긍정적인 감정 25%(27회), 미래에 대한 다짐 3%(3회) 등으로 총 108회 응답했다. 부정적인 감정은 구체적으로 소외감(10회), 외로움(8회), 불쾌(5회), 비참함(5회), 부끄러움(5회), 미안함(3회), 섭섭(3회), 허망(2회), 민망·당황(2회), 서러움(2회), 힘듦(2회), 속상함(2회), 우울(2회), 위축(2회), 추함(2회), 씁쓸(1회), 인내(1회), 슬픔(1회), 난감(1회), 비웃는 것 같음(1회), 두려움(1회), 심심(1회), 아쉬움(1회), 포기(1회), 어색(1회), 괴로움(1회), 이해 못함(1회), 무서움(1회), 답답(1회), 착잡(1회), 서운(1회), 원망(1회), 회의(1회)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집단으로부터 배척당하는 사람은 대체로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았다. 본래부터 사회적 약자로서 자존감이 낮은 상태인데, 집단으로부터 또 다시 배척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자존감이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무석에 의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대인기피 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²⁶⁾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배척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진정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척이 이루어질 경우 제3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선생님의 개입으로 가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응답(3회)을 통해서도

26) 이무석,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비전과 리더십, 2009. p.43.

확인된다.

또한 긍정적인 감정은 구체적으로 뿌듯(7회), 노력(6회), 기분 좋음(5회), 편안함(2회), 동질감(2회), 현실에 충실(1회), 고마움(1회), 재미있음(1회), 상금(1회), 이해(1회)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관계를 극복하고 난 이후의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다짐에는 ‘나는 안 그러겠다.’, ‘후회’, ‘도움이 되자.’ 등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미래에 대한 다짐을 통해 집단으로부터 배척을 당해 본 경험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배려하는 마음 씀씀이를 배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집단으로부터 직접 배척을 당하지 않더라도 영화를 통해 그런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보으로써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영화치료를 통해 기대했던 것이 실현될 수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일곱째, 우리 사회를 동물농장이라 본다면 어떤 모습이나는 질문에 대해, 약자가 차별받는 사회 42%(58회), 기득권 집단이 배척하는 사회 31%(43회), 계급화된 사회 14%(20회), 공동체사회 11%(15회), 경쟁사회 2%(3회) 등으로 총 139회 응답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는 사회라는 응답(42%)이었는데, 그 대상은 외국인 노동자[유색인] 55%(32회), 장애인 34%(20회), 여성 5%(3회), 나약한 학생[왕따] 5%(3회) 등으로 총 58회 응답했다.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득권 집단이 비기득권층의 사람을 타인을 배척하는 사회라는 응답이 31%였는데, 그 대상은 다른 성향의 사람[성적 소수자·미혼모] 배척 50%(21회), 기존 집단이 타인 배척 33%(14회), 소수 인정 없음 17%(7회)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집단은 대학생으로서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을 만큼 우리사회에서 이미 기득권을 차지한 계층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염소와 같이 심각한 배척을 받은 경우는 없으나, 영화치료를 통해 진정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제거해야 된다고 봄으로써, 인권 존중심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의 한국인이고 비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음을 영화치료를 통해 인지함으로써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화치료의 텍스트로 채택한 <별별이야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성적 소수자나 미혼모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으며, 그들의 인권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까지 인권 존중에 대한 의식을 확대시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사회적 약자에 대해 차별이 일어나는 내용의 영화를 보고, 등장인물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러한 상황을 자신의 경험에 대입시켜보는 과정은 인권 존중심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여덟째, 살기 좋은 동물농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차별이 없는 새로운 인식의 필요 61%(80회), 타인을 수용하는 공동체 정신 필요 38%(50회), 집단원에 대한 우두머리의 관심 1%(1회), 평등한 분배 1%(1회) 등으로 총 132회 응답했다. 네번째 질문이었던 다양한 종류의 동물이 들어온 이후, 동물농장의 모습에 대한 응답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즉 차별이 없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여, 구성원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번째부터 네번째까지의 질문은 영화 <동물농장> 속에 이미 들어있는 작품 내용에 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바라보았는데, 다섯번째부터 여덟번째까지의 질문인 동물농장을 우리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와 유사한 답변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영화치료를 통해 자신의 시각을 객관적으로 비추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가치관이나 행동양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갈 수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비르그트 볼츠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의식적 자각’을 가지고 영화를 본다면, 무비판적인 태도로 주의를 집중하게 되어, 현재 경험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 수용하려는 태도를 지니게 되므로 의식적 자각 수준을 높일 수 있다²⁷⁾는 영화치료의 효용성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또한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이처럼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때, 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사회가 건설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아홉째, 느낌을 묻는 질문에는 7명만 응답하였기에 페센트가 너무 낮아 반영하지 않았다.

27) Birgit Wolz, *E-Motion Picture Magic : A Movie Lover's Guide to Healing and Transformation*, (심영섭 · 김준형 · 김은하 역, 『시네마테라피』, 을유문화사, 2006. P.55.)

4. 맺음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획·제작한 애니메이션 <별별이야기>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차이와 구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하여 인권 존중심 향상을 위한 영화치료의 텍스트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작용했다. 특히 유니버스 형식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계층에서 빚어지는 차별의식을 섬세하게 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차별에 대해 유쾌한 풍자를 하고 있는 <별별이야기>를 텍스트로 인권 존중심 향상을 위한 영화치료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우리사회에서 소수 약자에게 빚어지는 차별을 아울러 보여준다는 점 때문에 설문지 작성의 텍스트로 사용된 <동물농장>은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상징성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작품이었다. 특히 동물농장이라는 우화적 상황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빚어지는 차별의식을 객관적으로 잘 보여주었다. 그러한 까닭에 참여자들로 하여금 영화에 담겨있는 사회적 강자인 양과 사회적 약자인 염소의 관계를 통해 차별이 일어나는 사회상황과 차별로 인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영화의 등장인물이라는 은유적 장치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기 노출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차별의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낼 수 있었다.

둘째, 영화를 텍스트로 하여 참여자들로 하여금 등장인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 참여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영화치료이다. 따라서 영화를 감상하며 영화에 담겨있는 영상기법을 읽어내는 지적 작업이 주는 쾌감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 매체가 가져다주는 흥미로움 때문에 어떤 계층의 사람들도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별별이야기>는 유니버스 형식으로 이루어진 여섯 편 모두 각기 다른 필법으로 그린 애니메이션으로 고도의 상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참여자들의 지적 욕망을 충분히 충족시켜줌으로써, 영화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참여자들이 경험한 우리사회에서 빚어지는 차별의식에 대한 응답 결과는

영화 <동물농장> 자체에 대한 응답 결과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것은 영화 속에 들어있는 작품 자체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응답이 이루어졌던 것과 관련이 있다. 즉 같은 사실을 두고도 응답자의 가치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치관 형성은 배경지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데, 참여자들의 차별에 대한 경험과 영화에 나타난 차별에 대한 해석이 유사한 양상을 보였던 것은 바로 참여자들의 배경지식과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참여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강자인 염소의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척했을 때의 경험과 그 반대의 입장에서 배척을 당했을 때의 입장을 비교해 보았을 때, 사회적 강자로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힌 경험의 강도가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영화치료의 참여집단이 대학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 면에서 이미 사회적 강자에 속하는 집단이었던 데 기인한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러한 연구의 결과물을 본 연구의 결과물과 비교해 보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참여자들은 영화치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나 장애인의 입장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 봄으로써 차별의 폐해를 인식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차별을 배척해야만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다는 의식으로써 나아가 인권 존중심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영화치료의 텍스트에 등장하지 않았던 성적 소수자나 미혼모 역시 사회적 약자로 그들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식으로써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영화치료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영화치료를 통해 우리사회의 모습을 비롯하여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애니메이션 <별별이야기>, (서울: 대경DVD, 2005).

http://www.humanrights.go.kr/02_sub/body01.jsp

2. 단행본

Alain Badiou, *L'ÉTHIQUE: Essai sur la conscience du Mal*, Paris: Hatier, 1993.(이종영 역, 『윤리학』, 서울: 동문선, 2001.)

Birgit Wolz, *E-Motion Picture Magic : A Movie Lover's Guide to Healing and Transformation*, (심영섭 · 김준형 · 김은하 역, 『시네마테라피』, 을유문화사, 2006.)

Emmanuel Levinas, *Le Temps et L'autre*, Fata Morgana, 1979.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서울: 문예출판사, 2001.)

Richard Kearney, *STRANGERAS, GODS AND MONSTERS*, Routledge.(이지영 역, 『이방인 · 신 · 괴물』, 서울: 개마고원, 2004.)

고자카이 도시아키(小坂井敏晶), 방광석 역, 『민족은 없다, 뿌리와 이파리』, 2003.
변정수, 『그들만의 상식』, 모티브, 2005.

이무석,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비전과 리더십, 2009.

최현진, 『사이코드라마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3.

3. 논문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치료』,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9.

곽정란, 「장애인과 인권」,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6권 2호,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2005.6. pp.415~425.

김기봉, 「인문치료의 역사-‘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역사의 무거움-」, 『2010 인문치료 국내학술대회 자료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한국(HK) 인문치료사업단, 2010. 5. 14.~15. pp.45~55.

- 김엘립, 「여성과 노동복지관계법」, 『법과 사회』, 8호, 법과 사회이론학회, 1993. pp.121~141.
- 김종휴, 「여성과 인권」, 『저스티스』, 28권 2호, 한국법학원, 1995. 12. pp.168~184.
- 김혜영, 「한국의 가족주의와 여성의 인권」, 『아시아여성연구』, 4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3. 12. pp.9~46.
- 김희강, 「여성인권의 딜레마」, 『한국정치학회보』, 43집 4호, 한국정치학회, 2009. 12. pp.99~123.
-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인권-‘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 및 ‘인간의 기본권’의 상충요소 검토-」, 『민주주의와 인권』, 5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5. 10. pp.39~77.
- 최성철, 「인권의 철학적 배경에 관한 연구-자연법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1집 1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99. 7. pp.85~122.

[Abstract]

Cinema Therapy to Improve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Focused on *If You Were Me: Anima Vision*

Yoon Ilsoo

If You Were Me: Anima Vision, which was planned and made b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s designed to point out the sense of discrimination, and to improve the sensitivity of human rights which differentiates between the difference and the discrimination. It is made under the consideration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a cultural approach for the improvement of the sensitivity. The Commission shows a strong will of the improvement by way of the catch phrase, 'Power to renew Korea'.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animated film has a high effectiveness as a text for Cinema Therapy studies to improve the respect of human rights in view of its subject, character setting, drawing technique, color. Cinema Therapy generally proceeds in sequence of 'Warming-up→Watching the movie→Survey→Discussion·Presentation. As the omnibus-formatted text of this study program gives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the aspects of the abuse of human rights which happened in the various fields, to watch the movie itself becomes Warming-up. In particular, Nap deals with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The Woman's House deals with the discrimination of gender role, Woman of Too Fat and Big Bone deals with that of appearance, Bike Trip deals with that of foreign worker, Be a Man deals with that of educational background. Animal Farm comprises all omnibus stories in that it deals with the minor social weak. Therefore, it is used as a main text for the making-out of the questionnaire

to research the opinion concerned with the respect of human rights of the participants. It is composed of the respondents' opinion about the film's contents, their experience of being the social string and the social weak, the view of life. The result of putting the responses together shows that the desire of belonging is strong, and that there are many discriminative behaviors for the minor social weak, such as a transfer student, a mixed-bloods, the disabled person. Also, it is found out that the behavior of making the social weak into a person of otherness results from the sense of difference, and that the will to live together by the understanding for other person's position through this Cinema Therapy is revealed strongly.

【Subject Words】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ensitivity of human rights, Respect for human rights, Otherness, Social Weaker, Discrimination, Cinema Therapy.

윤일수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한국(HK)사업단

(706-76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천지3길 38번지 매호동 동서1차 아파트 101동
1002호

전자우편: yoon9525@chol.com

이 논문은 2010년 5월 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0년 5월 24일에 심사 완료되어
5월 27일에 게재 확정되었음.